

회사채 시장 ‘돈맥경화’… 고금리에 20대 그룹 순발행 단 4곳

20대 그룹 대부분 발행보다 상환 SK 순상환액 4조4508억 ‘최대’ BBB급 회사채 잇단 수요예측 부진 기업 자금조달 은행 대출로 이동 시설자금 발행 급감 투자위축 우려

국내 대형 증권사에서 회사채 발행 업무를 하는 A 씨는 최근 한 대기업의 재무팀 담당자를 만난 후 성과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이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왔기에 새로 회사채를 발행해 만기 회사채를 갚는 ‘차환’ 발행을 상의하러 갔지만 기업 측에서 이전보다 눈에 띄게 오른 금리 때문에 발행을 미뤄야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전에는 1~2%의 금리 정도면 회사채 발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보다 두세 배 높은 금리를 제시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며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들도 요즘 자금 조달이 막혀 답답해한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자금줄인 회사채 시장 기능이 악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중동 전쟁, 긴축의 공포가 확산하면서다. 그 영향으로 커진 시장의 변동성도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때문에 자금 조달에 나선 기업은 더 비싼 값에 돈을 빌려야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대 대기업집단(금융사, 영풍 제외) 중 올해 회사채를 순발행한 곳은 삼성(4900억원), 한화(1180억원), 한진(2885억원), CJ(2972억원) 단 4곳이다. 20대 기업집단 중 순상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에 따라 회사채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있다.

액이 가장 큰 곳은 SK다. SK의 순상환액은 4조4508억원에 달했다. 이어 롯데(-1조3926억원), LG(-1조3711억원), HD현대(-1조1080억원) 순이었다.

◆회사채 흥행 저조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다 보니 신용도가 높은 기업들까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용 등급이 싱글 A급으로 더 낮은 기업들의 성적은 초라하다. 이랜드월드(BBB0)는 이날 1년 단일물로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회사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기관들은 모집액 대비 20억원 미달한 180억원 규모의 주문을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진(BBB+) 역시 총 400억원을 모집하는데 1년물 모집에서 10억원이 미달했다.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에 성공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롯데건설(A)은 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1510억원의 수요를 모집했다. 발행 금리는 1년물이 개별 민평 수익률보다 30bp(1bp=0.01%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모집 물량을 채웠고, 1.5년 물은 민평금리와 같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지난달 신용 등급 BBB- 기업의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1.382%로 연고점을 찍었다. 그러다 보니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다. 두산과 두산퓨얼셀, HL D&I 한라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공모채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올해는 아직 한 차례도 시장을 찾지 않았다. 같은 기간 두산에너지빌리티와 한진칼도 각각 세 차례 수요예측에 나

섰으나 올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024년과 지난해 연이어 발행했던 CJ CGV도 올해 공모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비싼 회사채 대신 은행에 손을 내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비금융업 2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최근 1년간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자금 조달 수단은 시중은행 차입(43.6%)이었고, 회사채 발행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투자 위축 우려

기업들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신규 투자, 기존 부채 상환 등을 위해 회사채를 찍어 시장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나 금리 인상(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채권값 하락과 글로벌 각국의 재정 부담,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주길 꺼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회사채 발행이 줄면서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상반기 시설자금 목적의 회사채 발행액은 92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시설자금 목적 발행액은 2021년만 해도 5조4788억원에 달했으나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최소 올 연말까지, 길게는 1년 반 정도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 경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와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중 1년 내 갚아야 할 회사채 규모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자동차그룹이다. 이어 SK(8조8688억원), 롯데(5조8510억원), 삼성(5조

1000억원), LG(3조8650억원) 순으로 만기 도래분이 많다.

각국의 국제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글로벌 채권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제 금리는 전장 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4.788%를 나타냈다. 2025년 1월 1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 30년 만기 국제금리는 장중 5.919%까지 오르며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금리는 5.224%로 2008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독일 10년 만기 국제 금리도 장중 3.339%까지 올라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 채권 시장에서 3년 만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상승했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금리 상승이 연말까지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위축된 채권 투자 심리 역시 연말까지는 쉽게 회복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각국 국제금리가 치솟고 있어 상당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며 “지금부터 1년 반 정도 사이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반도체·AIDC 수주 기대에 건설주 질주

상반기 건설수주 116조 3년 만에 최대 반도체 공장·AIDC 발주 본격화

건설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도체 공장 and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비주력 사업에서 새로운 수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 기대가 건설주 전반의 재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3~31일) KRX 건설지수는 22.72%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5.29%), 헬스케어(11.81%), 철강(18.75%) 등 주요 업종 지수 상승률을 모두 웃돌았다.

개별 종목의 상승폭은 더 컸다. GS건설은 2만4250원에서 3만6300원으로 49.69% 올랐고, 대우건설은 1만3300원에

서 1만8190원으로 36.77% 상승했다. 현대건설도 9만5600원에서 12만3300원으로 28.98% 뛰었다. 반면 DL이앤씨(17.65%), 삼성물산(14.44%), 삼성E&A(6.08%)는 업종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배경에는 건설수주 증가가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액은 11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늘었다. 2022년 상반기 129조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대표적인 수주처는 반도체 공장 and 데이터센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6월 각각 약 2100조원, 1100조원 규모의 중장기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평택·용인 일대 공장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SK·GS·네이버가 주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국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도 총 18.47기가와트(GW) 규모로 구체화됐다. 예상 수주 규모는 180조~19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호적인 정책 모멘텀도 추가 증가 상승 요인이다. 전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7년 국토부 예산은 69조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기금은 전년 대비 6.2조원 증액됐으며, 그 중 주택공급 관련한 예산이 8.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투자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나증권 김승준 연구원은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아영 기자 aykir@

서학개미 머크 사고 가상자산주도 담았다

해외주식 Click

머크 순매수 1위 암 백신 임상 호재 고위험주·배당ETF 동시 매수 확대

국내 투자자(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매수처가 한층 다양해졌다. 암 백신 임상 호재를 등에 업은 머크를 가장 많이 사들인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주와 스페이스X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도 자금이 몰렸다. 동시에 배당주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순매수 상위권에 오르면서 공격과 안정형 투자가 동시에 나타났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따르면 결제 기준 지난달 24~31

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는 미국 제약사 머크로 집계됐다. 순매수 결 제액은 9957만달러였다. 이어 서학개미들은 스트래티지(옛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9126만달러어치 순매수했다.

머크 매수세에는 최근 발표된 암 백신 임상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머크는 모더나와 공동 개발 중인 개인 맞춤형 메신저리보핵산(mRNA) 암 백신의 임상 3상 성공 소식이 전해진 이후 주가가 크게 뛰었다. 단순한 제약주 방어수요보다는 신약 개발이라는 개별 호재를 확인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형 전환금융 현장 안착 본격화

2028년 기후공시 단계적 시행 탄소 다배출 기업 전환 지원

금융감독원이 탄소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한다.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기후공시를 금융회사의 대출·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2일 이화여자대학교와 서울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저탄소 전환 시대의 미래 기후금융’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영국·일본·홍콩 금융감독기관과 HSBC·ING·ANZ·동경해상 등 글로벌 금융회사,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기후금융 정책과 관련 시장의 발전 방향, 금융회사의 기후위험 분석·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금융이 담당할 역할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재해가 가계와 기업 등 차주의 손실로 이어지고 금융회사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신용·시장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코스콤·현대차증권 토큰증권 플랫폼 협력

제도 시행 앞두고 공동 인프라 구축 상품 발굴·계좌관리 공동 대응

코스콤과 현대차증권은 1일 코스콤 본사에서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이용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7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에 대비해 양사의 업무·기술 역량을 결합하고, 토큰증권 발행 및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공동 인프라와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이용을 위한 업무 및

시스템 연계 ▲토큰증권 기초자산과 상품 발굴 ▲발행 및 계좌관리 업무 프로세스 구체화 ▲법·제도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반영한 공동 테스트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코스콤은 다수 증권사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KoSTO’를 준비하고 있다. LG CNS와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한국예탁결제원과 총량관리 연계 테스트베드 실증을 마쳤으며, 12개 증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하은 기자